



박봉우 |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자연공원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들

● 자연공원, 국립공원

자연공원이란 무엇일까? 자연공원을 우리는 어떻게 보존하고 이용하여야 할까? 여러 공원형태를 포괄하는 자연공원공원이라는 용어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면에서 국립공원이라는 용어로 한정하여 글을 전개한다. 1872년 미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국립공원(National Park)제도를 시행하고, 옐로우스톤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국립공원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 지정하여, 국립공원은 미국이 지구 인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미국의 국립공원은 1916년 내무부 산하에 국립공원청을 발족시켜 공원을 운영 관리해 오면서 현재는 국립공원체제 내에 공원, 기념물지역, 절대보존지, 해안과 하안지역, 원생 및 경관하천 등을 포함한 19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산악형 국립공원과 같은 것은 50여개가 지정되어 있다.

우리 땅에서는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금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준비를 하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야무야 되었고, 우리 정부가 세워진 뒤 1967년 지리산을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국립공원은 처

음에 건설부가 운영 관리하면서 소위 개발이라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물론 이용자를 위한 개발,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 등이 적용되기는 해야 하지만 국립공원이 처음 지정되었을 당시에 국립공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것 같지는 않았다. 전문가라야 다섯 손가락도 꼽을 수 없었고 이제 막 공부를 한 애송이 전문가들에게는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별반 나아진 것은 없다. 정책도 이용자의 수준도 말이다. 국립공원은 개발부터 시작해야 하고 대표적인 국민 관광지점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시작한 국립공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전혀 궤도 수정을 하지 못하는 때문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것이다. 이제 부더라도 국립공원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국립공원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어떻게 이용자를 유도해야 하는가를 가슴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뜨거운 가슴으로 말이다. 국립공원의 정의가 무엇이라는 것은 머리 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제대로 행동이 뒷받침 되어

주지 않는 지식, 화석화된 그런 지식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국립공원원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국립공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자고 권하고 싶다.

● 국립공원의 정책 입안과 전문가

국립공원이 우리 땅에 지정 된지도 벌써 40년이 되어 가고 있다. 시작이 어렵지 시작한 다음에는 시간을 화살같이 지나간다. 지난 40년 세월 동안 우리는 국립공원을 위하여, 혹은 그 이용자들을 위해 무엇을 해 왔는가?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개발과 건설을 한다고 하면서 국립공원 개념을 잘못 적용하지는 않았는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이름 아래 공원자원에 대한 파괴는 없었는지? 공원의 훼손지를 복원한다면서 인위적으로 외래종의 도입을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그동안 공원 주변에서 혹은 공원 안에서 일해 보면서 우리는 전문가를 너무 무시하고, 비전문가들이 국립공원 전문가 행세하고 목청을 높이는 것을 자주 보아 왔다. 학문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얼렁뚱땅 공원 관련 책이나 한 권 읽고 전문가 행세를 하니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게다가 정책 당국은 그런 그들로 하여금 발언케 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입안하고 있으니 우리 나라 공원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없다. 물론 제대로 된 전문가도 공원에 관여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대체로 동물 전문가, 식물전문가, 조경전문가, 산림전문가들로 개별분야 전문가일 뿐이다. 그들은 공원을 알지 못한다.

국립공원이라는 전체는 동물, 식물, 산림, 지질 등 여러 인자들이 모여 하나의 계(system)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시피

계는 개별 인자의 단순 플러스 합계치가 아니다. 계를 보는, 계를 다루는 공원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원 전문가가 각각의 인자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할 때 해당 분야의 의견을 받고 이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공원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원이 무엇인지, 공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배제한 채, 비록 제 나름대로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공원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모여 공원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참으로 곤란하다.

더구나 지방자치제를 빙자하여 국립공원을 단순 관광지 정도로 간주하는 단체장들의 국립공원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정치적 논리는 합리적인 공원 정책의 수립을 훼방하고 우리 국립공원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참으로 당혹스럽다.

국립공원은 그나마 훼손이 덜 된 자연이다. 이제 그런 곳은 국립공원 이외에는 남아 있지 않다. 자연은 우리에게 심신을 회복하고 충전시켜 주는 충전기요 원천이다. 충전기가 파괴되지 않아야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충전 받아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 국립공원 이용자의 윤리

자연보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인간의 처지를 우선시한다. 즉 인간 중심에서 본 자연보호를 말한다. 그러다 보니 국립공원을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편의를 우선 생각한다. 쉬운 예로 보자. 요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바람인지 국립공원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스틱을 가지고 다니면서 좀 더 편안한 산행을 하려고 한다. 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만든 문제는 그 스틱의 끝이 날카롭다는데 있다. 날카로운 스틱의 끝으로 땅을 찌고, 돌을

쫓아대니 한사람이 한번에 훼손하는 양이 배가 늘고 있다. 우리 선조들은 산길을 갈 때 행여 다른 생명들을 해칠까 싶어 짚신발도 조심스레 옮겼다는 이야기는 요즘에는 사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쇠꼬챙이로 함부로 여기저기를 찍어대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스틱을 가지고 가려면 적어도 캡을 씌우던지, 아니면 나무 지팡이를 이용하던지 해야 하지 않을까? 현대 조경의 획을 그은 미국의 프레더릭 올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는 이미 한 세기도 훨씬 전에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계곡을 방문하고는 한사람 한사람이 미치는 이용 영향이 지속적으로 쌓여질 때 경관자원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를 보호하고 우리 뒤에 오는 세대도 손상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여 뒷날에 미국이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데에는 적어도 이용자 윤리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국립공원에서 탐방로

를 벗어나 함부로 확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유심히 살펴보기를 권하고 싶다. 자연에서 누리는 방만한 자유는 휴양활동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일단 우리 나라의 대표 경관이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다. 어떻게 나만 즐기면 그만이지 하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은 다 제쳐 놓는다 해도, 각자가 끔찍하게 아끼는 자신의 자식들도 좋은 경관을 볼 수 있게끔 해 준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국립공원에서의 나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경관으로 후손에게 넘겨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 약력

본회 대의원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장

